

위대한 [자의] 지혜(Mahājñāna)에서 커다란 수레(Mahāyāna)로* —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Vasubandhu)의 역할

이영진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tatpum@gmail.com

I. 들어가며

II. 『십지경』 제8대원과 제10대원에 나타난
Mahājñāna와 Mahāyāna

III. 『십지경론』 제8대원과 제10대원 주석
에 나타난 Mahājñāna와 Mahāyāna

IV. 나오는 말

요약문

이 논문은 『십지경』 제1지의 열 종류로 이루어진 위대한 맹세[大願 mahāpraṇidhāna] 중 여덟 번째와 열 번째에 나타난 ‘mahājñāna’와 ‘mahāyāna’의 혼동을 다루는 논문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서 산스크리트 5종, 티벳어 4종, 한역 7종의 총 16종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중 특히 번역 연대가 명확히 밝혀진 한역들을 통해 『십지경』에서 대지와 대승의 혼란은 본래 위대한 [자의] 지혜[大智]를 의미했던 용어를 커다란 수레[大乘]로 의도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십지경론』 저자로 인해 초래했다'는 작업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십지경론』의 주석을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5A8036261).

그 결과, 제10대원의 주석에서 “위대한 [자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라는 인용을 “커다란 수레를 완성하기 위하여”로 바꾸어 쓴다는 증거를 토대로, 세친이 대지를 의도적으로 대승으로 변형시켰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십지경론』 이후의 자료들 특히 산문 리센션 『십지경』의 경우 세친의 영향을 받아 대지와 대승의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가설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제 8대원을 일으키는 대표 목적이 “대지/대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인 『십지경』의 모든 버전들과 달리 세친의 주석이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동일한 노력을 갖추기 위하여”로 바뀌는 점, 그리고 제 10대원 역시 무상정등각이 대표 목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이 『보살지』의 서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은 이러한 『보살지』 등의 초기유가행과의 견해에 입각하여 『십지경』을 주석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다르마라샤가 산스크리트 ‘mahājñāna’에 상응하는 용어를 ‘大聖慧’로 번역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세친이 주석에서 ‘mahājñāna’를 ‘*buddhajñāna’로 바꾸어 쓴다는 점에 기반하여, 이 용어가 위대한 지혜 뿐 아니라 위대한 자=부다의 지혜로도 해석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주제어

『십지경』, 『십지경론』, 제8대원(大願), 제10대원, 위대한 [자의] 지혜[大智], 커다란 수레[大乘], 세친(世親)

I. 들어가며

가라시마 세이시(辛嶋静志 1957~2019)는 1993년 일본어 논문과 이를 번역 개정한 2015년 영어 논문을 통해 『법화경』에 보이는 대지(大智 mahājñāna)와 대승(大乘 mahāyāna)이라는 두 용어의 혼란에 대해 다룬 바가 있다.¹⁾ 가라시마는 이 논문들에서 『법화경』의 산스크리트 사본들과 편집본, 다르마라샤(Dharmarakṣa 竺法護)와 꾸마라지바(Kumārajīva 鳩摩羅什)의 한역을 대상으로 혼란이 일어난

1) 본 논문은 이 두 논문 중에서 개정된 Karashima(2015)를 사용한다. 이를 요약 정리한 것에 관해서는 이영진 2019, 11-15를 참조.

두 용어에 대해 조사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프라크리트 *jāna'는 지혜(Skt. jñāna)와 탈 것(Skt. yāna)의 중의적 의미를 지닌 단어(double-entendre word)인데, 구어체에서 *mahājāna'로 발음된 '벗다의 지혜' 혹은 '위대한 지혜'(Skt. mahājñāna)는 『법화경』에서 불타는 집의 비유에서 '커다란 수레'(Skt. mahāyāna)에 비견되었으며, 이러한 비유를 통해 '커다란 탈 것'으로 그릇되게 해석되었으며, 비유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커다란 수레'라는 개념은 후에 다른 경전의 작자들에 의해서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채용 정착되었다.²⁾

이영진은 2019년 『십지경』(Daśabhūmikāsūtra) 제2지인 이구지(離垢地 Vimalā bhūmi)의 요약 계승과 이에 해당하는 산문의 조사를 통해 가라시마의 가설이 최초로 경전 중 하나인 『십지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는 계승의 편집본들 사이에서 'buddhajñāna'(佛智)와 'buddhayāna'(佛乘)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개소에 관해 두 종류의 사본이 프라크리트의 형태가 남아 있는 'buddhajāna'로 읽고 있음을 밝혀, 'yāna'와 'jñāna'의 혼동의 배후에 프라크리트 'jāna'가 있다는 가라시마의 추정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³⁾ 또한 시기적으로 앞서며 운율의 제한으로 인해 변형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승의 '여래들의 더러움이 없는/광대한 지혜'가 산문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상(無上)의 대승'으로 정착하는가를 살펴보았다.⁴⁾

대지와 대승의 혼란을 다룬 시리즈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십지경』 제1지인 환희지(歡喜地 Pramuditā bhūmi)의 열 종류로 이루어진 위대한 맹세[大願 mahāpraṇidhāna] 중 여덟 번째와 열 번째 대원에 나타난 'mahājñāna'와 'mahāyāna'의 혼동을 다루고자 한다.⁵⁾ 이 개소를 선택한 이유는 두 용어의 시기적인 혼동 양상, 정확하게는 '위대한 [자의] 지

2) Karashima 2015, 187-188; 이영진 2019, 12.

3) 이영진 2019, 21-22.

4) 이영진 2019, 22-29.

5) 이 중 여덟 번째 대원에 나타난 두 용어의 혼란은 10지에 나타난 혼란과 더불어 가라시마 세이시에 의해 자료로서 언급되었다. Karashima 2015, 186의 n.60 참조.

혜'[大智]로부터 '커다란 수레'[大乘]로 변화하는 과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여덟 번째와 열 번째 대원에 대한 『십지경론』의 주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티벳역을 주된 자료로 하고, 아바야까라굽타(Abhaya-kāragupta)가 『무니마탈랑가라』(Munimatālaṅkāra 12세기)에서 발췌한 산스크리트 『십지경론』의 인용문⁶⁾을 보조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은 주석에서 『십지경』의 맥락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변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⁷⁾

IV장에서는 세친이 제8대원과 제10대원에서 '위대한 [자의] 지혜'(大智)로부터 '커다란 수레'(大乘)로 변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경향이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II. 『십지경』 제8대원과 제10대원에 나타난 Mahājñāna와 Mahāyāna

필자는 해당구문들의 분석을 위하여 산스크리트 5종(사본 3종과 편집본 2종), 티벳역 4종, 한역 7종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중 『십지경』 산스크리트 사본 중 가장 빠른 시기에 필사한 ⁽¹⁾MS A, 경전부(mdo sde)에 속하는 ⁽²⁾『십지경』 티벳역(Tib_{mdo}),⁸⁾ 『십지경론』에서 인용하는 『십지경』 본문의 ⁽³⁾티벳역(DBhV_{Tib})과 ⁽⁴⁾한역(DBhV_{Ch}), 『십지경』 10대원을 인용한 『식사삼우짜야』(Śikṣāsāmuccaya)의 ⁽⁵⁾산스크리트 사본(ŚS_{MS})과 ⁽⁶⁾티벳역(ŚS_{Tib})과 ⁽⁷⁾한역(ŚS_{Ch})⁹⁾의 7종 자료는 시작과 요약계송이 없다는 의미에서 산

6) 加納(Kano) 2019, 117-120.

7) 박보람 2016, 164; 이영진 2018a, 54-55.

8) MS A 사본의 자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Matsuda 1996, xv-xxi 참조. 경전부의 『십지경』 티벳역과 화엄부(phal chen)의 『십지경』 티벳역(Tib_{phal}) 등을 비롯한 『십지경』 티벳역 전반에 관해서는 Yuyama 1996, 270-273을 참조.

문 리센션(prose recension)이다. 필자는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이 이러한 산문 리센션의 제작에 깊이 관여되어있다고 추정하는데(각주 31 참조), 이 산문 리센션 자료와 나머지 운문을 수반한 8종 자료¹⁰⁾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우선 7세기 초에 필사된 『십지경』 산스크리트 사본인 MS A를 주된 자료로 하고 결락된 부분을 14~15세기에 필사한 『식사삼우짜야』의 필사본(SS_{MS})으로 보충하여¹¹⁾ 제8대원의 구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산문 리센션 산스크리트 사본의 제8대원

| | |
|-----------------|---|
| MS A 8v6-9r2 | yad uta ○ sarvvabodhisatvaikāśayaprayogā<<ya>> niḥsapatnakūśalamūlopacayāya • e .. /// + ... y. av(i)r(a)h(i)t(a)s(a)t(a)t(a)samitabodhisatvasamavadhānāya yatheṣṭabuddhotpādasamḍ(ar)[ś](a)nasamṭoṣa[n]ā○ya • svacittotpādātathāgataprabhāvājñānānugamāya • a)cyutānugāmīnyabhijñāpratīlambhāya • sarvvalokadhātvanvicā○raṇāya sarvvabuddhapaṇiṣanmaṇḍalaprati[i]bh[ā]saprāptaye • sa(r)vv(o)papattisv(a)ś(a)r(i)r(ā) .[u] /// ①(acintya)mahāyānoṭpetabodhisatvacaryyācāraṇāya • dharmaṇmadhātuvipulam ākāśadhātuparyyavasānam aparāṃta○koṭṭiṇiṣṭham sarvvalkalpasamkhyācaryyāsaṃkhyāpratīprasrabdham ②mahāyānāvātāraṇāya aṣṭama<<ṇ>> <ma>hāpraṇidhānam abhi<ni>rharati |
|-----------------|---|

- 9) Śikṣāsamuccaya의 산스크리트 사본과 티벳역과 한역의 정보에 관해서는 Bendal 1970, xxiv-xxx 참조.
- 10) (8-9)19세기 이후 산스크리트 사본에 근거한 콘도와 라더의 편집본(E^KE^R), (10-14)5종의 『십지경』과 『화엄경』<십지품> 한역, (15)화엄부(phal chen)의 <십지품> 티벳역(Tib^{phal})은 계승을 수반하고 있다. (16)중앙아시아 산스크리트 사본(CA_{MS})은 너무 단편이 남아있어서 현재까지는 소속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다.
- 11) 본 논문 전체의 산스크리트 사본과 편집본, 티벳역 편집에 쓰인 기호는 다음과 같다. .. 손상되어 읽을 수 없는 한 음절; . 손상되어 읽을 수 없는 한 음절의 부분; + 결락된 한 음절; ○ 결락을 복원한 부분; □ 글자가 손상되었으나 확신할 수 있는 읽기; <<>> 필사자 혹은 교정자의 삽입; <> 필사자가 누락한 부분을 본 편집자가 삽입; /// 사본이 여기서 파손됨; {} 불필요한 음절로 생략하고 읽기를 권고;] 필사가 채택한 읽기; conj. conjecture; em. emendation; om. = omitted. 번호와 밑줄은 필사의 삽입. *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집자가 취소하거나 지우고 그 위에 덧쓴 글씨 등 너무 세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 | |
|-------------------------------------|--|
| ŚS _{MS} 130r4-13 0v2 | yad uta sarva<<buddha>>bodhisatvaikāsayaprayogatāyai niṣpannakuśalamūlopacayāya ekārambaṇasarvabodhisatvasamatāyai avirahita○tatasamitabuddhabodhisatvasamavadhānāya yathecch{r}ābuddhotpādasandarśanāya saḥacittotpādatathāgataprabhāvajñānānugamāya acyutānugāminyabhijñāpratilābhāya sarvalokadhātu=anuvicaraanāya sarvapaṣṣatmaṇḍalapratibhāsaprāptaye sarvopapattisvasarīrānugamāya ①acintyamahājñānopetatāyai bodhisatvacaryācaraanāvyavacchedāya dharmadhātuvipulam ākāśadhātuparyavasānam aparāntakoṇiṣṭham sarvakalpasamkhyācaryāsamkhyāpratiprasabdham ②mahāyānāvātaraṇāyāṣṭamam mahāprañidhānam abhinirharati |
|-------------------------------------|--|

[번역:] 자세히 설하자면, 모든 보살과 동일한 의향과 동일한 노력[加行]을 갖추기 위하여,¹²⁾ 적(敵)이 없는 선근들을 쌓기 위하여, 모든 보살과 동일한 인식대상을 갖춘다는 점에서 동등해지기 위하여, 항상 끊이지 않고 보살[들]과 교류하며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붓다[들]의 출현을 보여주어 [중생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발심하여 여래[들]의 신력(神力)과 지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손상되지 않고 따라가는 신통을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세계로 유행(遊行)하기 위하여, 모든 붓다의 회중에 현현(顯現)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생처(生處)에 자신의 몸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① MS A: 불가사의한 대승을 갖추어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하여 ; ŚS_{MS} 위대한 자(=붓다)의 불가사의한 지혜¹³⁾/ 불가사의하고 위대한 지혜를 갖추기 위하여, 보살행의 실천을 끊어지지 않도록】 ,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으며 허공계를 그 끝으로 하며 미래제를 다하며 헤아려지는 모든 겁(劫)과 실천 중에서 단절되지 않는 여덟 번째 대원(大願)을 ②대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불리일으킨다.

12) ‘āsaya’와 ‘prayoga’의 관계는 번역과 같이 병렬복합어로도 혹은 ‘동일한 의향에 대한 노력’이라는 7격 한정복합어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는 Tib_{mdo}와 ŚS_{Tib}과 DBhV_{Tib}의 ‘bsam pa dang sbyor ba gcig par bya ba’이, 그리고 Ch^{K*ab}의 ‘同心同學’과 DBhV_{Tib}의 ‘同心同行’이 지지한다. 반대로 Tib_{phal}의 ‘bsam pa gcig pa’i sbyor ba’와 Ch^{Sn}의 ‘同一志行’과 Ch^{Sdh}의 ‘同一意樂加行’은 후자를 지지한다.

13) 번역에서 ‘대지’를 “위대한 지혜”이외에 “위대한 자(=붓다)의 지혜”라고 번역한 것은 ‘大聖慧’ 즉 위대한 성자(*mahāmuni)의 지혜로 풀이하고 있는, 297년에 번역이 완료되어 모든 자료 중 시기가 가장 빠른 다르마라샤의 한역(Ch^{Dh})을 참조하였다. Ch^{Dh}=『漸備一切智德經』(T285, 10:462c08), “其大聖慧不可思議。” 다르마라샤[竺法護] 역 『법화경』의 용어사전(Karashima 1998, 69-71)을 보면, 大聖은 산스크리트 mahāmuni와 maharṣi 등에 상당하는 용어로서 ‘위대한 성인 즉 붓다’(a great sage i.e., a buddha)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용에서 MS A와 ŚS_{MS}는 제8대원을 일으키는 목적 중 대표 목적을 서술하는 ②에 관해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대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부 목적 중 하나인 ①에 관해서는 ‘보살행의 실천’이 앞선 항목과 복합어인지 아닌지를 제쳐둘지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 **대승**(大乘)과 **대궐**(大智)로 갈리고 있다. 제8대원에 대한 한역 등 다른 자료와¹⁴⁾ 비교하여 ①과 ②에 관한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① mahāyāna/mahājāna

| ① | MS A | ŚS _{MS} | | | E ^R | | E ^K |
|------|--|---|-----------------|--|---|---------------------------|------------------|
| | 7세기 초 필사 | 14-15세기 필사 | | | 19세기 이후 필사본에 근거 | | |
| Skt. | /// mahāyānopeta ^a | acintyamahājānānopetatāyai | | | acintyamahāyānopetatāyai | | |
| Ch. | Ch ^{Dh} | Ch ^K | Ch ^B | DBhV _{Ch} | Ch ^{Sn} | Ch ^{Sdh} | ŚS _{Ch} |
| | 297년 번역원료 | 412년 | 420년 | 508년 | 699년 | 790년 | 1058년 |
| | 其大聖慧不可思議 … | 有如是不可思議太 賀慧… | | 成就不可思 議大乘故 | 成就不可 思議大乘 … | 為恒成就 不可思議 大乘理趣 … | 悟不思議大 乘妙法 |
| Tib. | Tib _{mdo} | Tib _{phal} | | DBhV _{Tib} | ŚS _{Tib} | | |
| | ? | 8세기 후반-9세기 번역/개정 | | | 11세기 후반 개정 | | |
| | theg pa chen po bsam gyis mi khyab pa dang ldan par bya ba | theg pa chen po bsam gyis mi khyab pa dang ldan pa'i … | | theg pa chen po bsam gyis mi khyab pa dang ldan par bya ba'i phyir | theg pa chen po bsam gyis mi khyab pa dang ldan par bya ba dang … | | |

〈표 3〉 ② mahāyāna

| ② | MS A | ŚS _{MS} | | | E ^R | | E ^K |
|------|--------------------------------|---|-----------------|----------------------------|-----------------------------|-------------------|------------------|
| | mahāyānāvātāranāya | | | | | | |
| Ch. | Ch ^{Dh} | Ch ^K | Ch ^B | DBhV _{Ch} | Ch ^{Sn} | Ch ^{Sdh} | ŚS _{Ch} |
| | 入於聖智 | 如是太賀慧道 | | 入大乘道 | × | 為太賀神通 | 等諸菩薩悟 入大乘 |
| Tib. | Tib _{mdo} | Tib _{phal} | | DBhV _{Tib} | ŚS _{Tib} | | |
| | theg pa chen po la 'dzud pa | theg pa chen po mngon par bsgrub pa | | theg pa chen po la 'jug pa | theg pa chen po la 'dzud pa | | |

14) 제8대원에 관한 위치정보는 다음과 같다. E^R 15.36-16.06; E^K 21.02-09; Ch^{Dh}=『漸備一切智德經』(T285, 10) 462c03-11; Ch^K=『十住經』(T286, 10) 501b24-501c02; Ch^B=『大方廣佛華嚴經』(T278, 9) 545c21-29; DBhV_{Ch}=『十地經論』(T1522, 26) 140a07-16; Ch^{Sn}=『大方廣佛華嚴經』(T279, 10) 182a15-22; Ch^{Sdh}=『佛說十地經』(T287, 10) 539a18-28; ŚS_{Ch}=『大乘集菩薩學論』(T1636, 32) 131a04-11; Tib_{mdo} Z69, 47a6-47b3; Tib_{phal} H94, 85a2-85b2; DBhV_{Tib} D3993, 141b4-142a1; ŚS_{Tib} D3940, 161a7-161b3.

우선 <표 2>와 <표 3>을 통해서 볼 때, 모두 7세기 이후인 산스크리트 자료들과 8세기 말~9세기 초에 주로 활동했던 예쎬데(Ye shes sde)가 번역에 참여한 것이 대부분인 티벳 자료들은 언급했던 ① ŚS_{MS}의 “mahājñāna”를 채용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대승(Skt. mahāyāna; Tib. theg pa chen po)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역의 경우 297년 다르마라샤의 한역(Ch^{Dh}), 402~412년의 꾸마라지바 한역(Ch^K)과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418~420년 붓다바드라(Buddhabhadra 佛跋陀羅) 역(Ch^B)은 ①과 ②에서 모두 산스크리트 ‘mahājñāna’에 상응하는 용어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508년 보리유지(菩提流支)의 번역인 『십지경론』(DBhV_{Ch})에 이르러 ‘大乘’(*mahāyāna)으로 변화한다. 이후 695-699년 식샤난다(Śikṣānanda 實叉難陀)의 한역(Ch^{Sn}), 753~790년 실라다르마(Śīladharma 尸羅達摩)의 한역(Ch^{Sh}), 그리고 1004~1058년 법호 등이 번역한 『대승집보살학론』(ŚS_{Ch})에서는 대승(大乘)과 대지(大智)의 혼란이 나타난다. 좀 더 자세한 계는 식샤난다의 경우 ①은 ‘대승’으로 ②는 번역을 생략하고, 실라다르마의 경우 ②는 그대로 ‘대지’를 계승하지만 ①은 ‘대승이취’(*mahāyānanaya 대승의 사상)의 새로운 어휘를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11세기 번역인 ŚS_{Ch}에서 법호 등은 ②에서 대승을 채택하지만 ①에서는 실라다르마의 ①과 유사한 ‘대승의 참된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승묘법’(*mahāyāna[sad]dharma)을 채택한다.¹⁵⁾ (그렇지만 ŚS_{MS}에서 mahājñāna를 유지하고 있음에 주의!)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고려할 때, 『십지경』에서 대지와 대승의 혼란은 본래 ‘위대한 [자의] 지혜’를 의미했던 용어(Pkt. mahājñāna, Skt. mahājñāna)를 ‘커다란 수레’(Skt. mahāyāna)로 의도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십지경론』 저자로 인해 초래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이제 동일한 가설이 제10대원에도 성립되는지 살펴보자. 열 번째 대원의 자료에는 앞서 없었던 중앙아시아 산스크리트 사본단편(CA_{MS})이 추가되는데, 대승과 대지가 결합한 것으로 추측되는 매우 흥미로운 읽기를 지니고 있다. 앞

15) 이 두 용어의 이해와 성립에 관해서는 각주 34의 Karashima(2019, 186의 n.60) 중 Yogaratnamālā의 인용을 참조할 것

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MS A를 주된 자료로 ŚS_{MS} 그리고 CA_{MS}를 보조 자료로 삼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산문 리센션 산스크리트 사본과 중앙아시아 사본의 제10대원

| | |
|---|--|
| <p>MS A 9r4-6</p> | <p>yad uta sarvvalokadhātuṣv a○nuttarasamyaksambodhi=abhisambodhāya ekabālapathāvyativṛttasarvabālapathajanmotpat<↳yabhinīṣkramaṇabodhi○ma- ṇḍadharmmacakrapravarttanamahāparinirvāṇadarśanāya mahābuddhaviṣayaprabhāvajñānānu(gamāya) sarvasatvadhātuyathāśayabuddhotpādaḥṣaṅkaṣaṅgavibodhanaprasaṃprāṇasam- darśanāya ekābhi○sambodhisarvadharmmadhātunirmāṇaspharaṇāya ekaghoṣodāhārasarvasatvacittāśayasamtoṣaṇāya ●○ mahāparinirvāṇadarśanacaryyābalān {y } upacchedāya ③mahājñānābhūmisarvadharmmavyavasthā[p](anasamdarśa)nāya ● dharmmajñānārdhimāyābhijñāsarvalokadhātuspharaṇāya dharmmadhātuvipulam ākāśadhātu○paryavasānam aparāntakoṭīniṣṭhaṃ ● sarvakalpasamkhyā=abhisambodhisamkhyāpratiḥsambodham ④mahājñānābhīrharā○ya daśamaṃ mahāprañidhānam abhinirharatī </p> |
| <p>CA_{MS} SHT 414a V 1</p> | <p>dhātvaḥsambodhisamkhyā=apratiprasrabdham ④mahāyānābhisambodhyabhinī[r]h[ā]ram abhinī[rh]. [d](a)[ś](a)m mahāprañidhānam abhin(ir)[h]. ++</p> |
| <p>ŚS_{MS} 130v5-131r3</p> | <p>yad uta sarvalokadhātuṣv anuttarasamyaksambo○dhyabhisambodhanāya ekav/bālapathāvyativṛttasarvabālaprṭha<<g*jana>>janmopapattyabhinīṣkramaṇa- vikurvaṇabodhimaṇḍadharmmacakrapravarttanamahāparinirvāṇopadarśanāya mahābuddhaviṣayaprabhāvajñānānugamāya sarvasatvadhātuyathāśayabuddhotpādaḥṣaṅkaṣaṅgavibodhanaprasaṃprāṇasanda- rśanāya ekābhisambodhisarvasatvadhātunirmāṇaspharaṇāya ekaghoṣodāhārasarvasatvacittāśayasantoṣaṇāya mahāparinirvāṇopadarśanaḥcaryyābalāvyupasthadāya ③mahājñānābhūmisarvadharmmāvyutthāpanasandarśanāya dharmmajñāna=rdhimāyābhijñāsarvalokadhā○tuspharaṇāya dharmmadhātuvipulam ākāśadhātuparyavasānam aparāntakoṭīniṣṭhaṃ sarvakalpasamkhyā=abhisambodhisamkhyāprati<<pra>>srbdham ④mahāyānābhīrharāya daśamaṃ mahāprañidhā○nam abhinirharatī </p> |

[번역:] 자세히 설하자면, 모든 세계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전히 깨닫기(現證) 위하여, 하나의 범부의 길[凡夫道]과 분리되지 않은 모든 범부의 길에서¹⁶⁾ [재]생하고 태어나고 출가하고 보리좌[에] 앉아 정각을 얻

고] 법륜을 굴리고 대반열반[에 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붓다의 위대한 경계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뒤따르기 위하여, 모든 중생계의 의함에 따라 【붓다[들]의 출현과 매 찰라마다/붓다[들]의 출현에 적합한 여기저기에서】¹⁷⁾ 깨닫고 적정을 증득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의 완전히 완성된 깨달음으로써 모든 법계를 마법적으로 만들어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소리를 발함으로써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의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반열반을 보여줌으로써 [보살]행의 힘을 끊지 않기 위하여, ③위대한 [자의] 지혜의 단계에 모든 교법(教法)을 나누어 세우는 것[安立]을 보여주기 위하여,¹⁸⁾ 법지와 초능력[如意]과 마술적 신통력으로써 모든 세계를 채우기 위하여,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으며 허공계를 그 끝으로 하며 미래제를 다하며 헤아려지는 모든 겁(劫)과 완전히 완성된 깨달음 중에서 단절되지 않는 열 번째 대원(大願)을 【④ MS A: 위대한 [자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CA_{MS} 대승에서 완전히 완성된 깨달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ŚS_{MS} 대승을 완성하기 위하여】 불러일으킨다.

-
- 16) ‘범부의 길’은 7세기 초에 ba와 va를 구분하고 있는 굽타 후기 문자로 필사한 MS A의 읽기 ‘bālapatha’에 기반하였다. 14-15세기에 필사한 ŚS_{MS}를 비롯하여, E^k와 E^h이 참조한 19세기 이후 사본들은 모두 ba와 va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vālapatha’(터럭의 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보리유지 역 『십지경론』(DBhV_{Ch})을 제외한 모든 한역자료는 ‘毛’를 채택하여 ‘vāla’를 지지하고 있으며, Tib_{phal} 역시 skra'i sbus로 번역하여 vālapatha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Tib_{mdo}, ŚS_{Tib}, DBhV_{Tib}은 byis pa'i lam을 채택하여 bālapatha를 지지하고 있으며, ŚS_{MS}의 교정자는 'sarvav/bālapatha'에서 patha를 prtha로 바꾼 후 gjana를 첨가함으로써 'sarvav/bālaprthagjana'(모든 어리석은 범부)로 이해하게 교정한다. 번역 연대가 명확한 한역들을 기준으로 할 때, 본래는 ‘터럭’(vāla)이었지만 세친의 『십지경론』의 주석을 기점으로 ‘어리석은 이’(bāla)로 바뀌어 간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 산문 리션선들, 즉 byis pa'i lam을 채택한 티벳역들과 MS A 그리고 ŚS_{MS}의 교정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7) ‘kṣaṇakṣaṇa’의 번역으로, ‘찰라 찰라마다’로 이해하는 다른 자료들과 달리 DBhV_{Tib}, Tib_{mdo}, ŚS_{Tib}는 이를 dal ba dal ba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의 주석 ‘붓다들이 출현하기에 적합한 여기저기에서 태어난 자들에게’(sangs rgyas 'byung ba sangs rgyas 'byung bar dal ba de dang der skyes pa mams la)의 영향을 받아 ‘붓다가 출현하기에 적합한 이곳저곳에서’(buddhotpādakṣaṇakṣaṇa)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18) ŚS_{MS}에는 ‘bhūmi 뒤에 ‘taḥ’가, 그리고 ‘sarvavadharmmāvuyutthāpana’(sarvavadharmmavuyutthāpana’로 교정필요)의 ‘na’ 밑에 ‘ne’가 삽입되어 있어, 이복합어를 ‘mahājñānabhūmitaḥ sarvavadharmmavuyutthāpane sandarśanāya’(위대한 [자의] 지혜의 단계로부터 모든 교법이 다양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로 해석하도록 주석이 부가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는 Tib_{mdo}와 ŚS_{Tib}의 “위대한 지혜가 모든 교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ye shes chen pos chos thams cad 'byung bar byed pa bstan par bya ba)와 일맥상통한다.

MS A와 ŚS_{MS}는 ③‘mahājñānabhūmi’(위대한 [자의] 지혜의 단계)라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④에서는 각각 ‘mahājñāna’(위대한 [자의] 지혜)와 ‘mahāyāna’(커다란 수레)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CA_{MS}의 ‘mahāyānābhisambodhi’라는 읽기이다. ‘abhisambodhi’는 ‘붓다의 깨달음’[正覺]이라는 의미에서 ‘mahājñāna’와 동일하기 때문에, CA_{MS}는 ŚS_{MS}의 ‘mahāyāna’와 MS A의 ‘mahājñāna’를 결합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¹⁹⁾

티벳역 등의 다른 자료들²⁰⁾과 비교하여 ③과 ④에 대해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5〉 ③ mahājñānabhūmi

| ③ | MS A | CA _{MS} | | ŚS _{MS} | E ^R | E ^K | |
|------|--------------------------|---------------------------------|-----------------|----------------------------------|------------------|--------------------------|------------------|
| Skt. | <u>mahājñānabhūmi</u> * | 결락(缺落) | | <u>mahājñānabhūmi</u> * | | | |
| Ch. | Ch ^{Dh} | Ch ^K | Ch ^B | DBhV _{Ch} | Ch ^{Sn} | Ch ^{Sdh} | ŚS _{Ch} |
| | 以太明地 | 太賀地 | | 太賀慧地 | | 太賀地 | 太賀力 |
| Tib. | Tib _{ndo} | Tib _{phal} | | DBhV _{Tib} | | ŚS _{Tib} | |
| | <u>ye shes chen po</u> s | <u>theg pa chen po</u> 'i sa la | | <u>ye shes chen po</u> 'i sa las | | <u>ye shes chen po</u> s | |

〈표 6〉 ④ mahājñāna/mahāyāna/mahāyānābhisambodhi

| ④ | MS A | CA _{MS} | | ŚS _{MS} | E ^R | E ^K | |
|------|--|--|-----------------|--|-------------------------------|---|------------------|
| Skt. | <u>mahājñānābhinirhāra</u> ya | <u>mahāyānābhisambodhy</u> abhini[r]h[ā]ram | | <u>mahāyānābhinirhāra</u> ya | <u>mahājñānābhinirhāra</u> ya | | |
| Ch. | Ch ^{Dh} | Ch ^K | Ch ^B | DBhV _{Ch} | Ch ^{Sn} | Ch ^{Sdh} | ŚS _{Ch} |
| | 當成佛道 致大神通 | 求太賀慧大神通等 | | | × | 為引發大乘 菩薩 | 成三菩提 |
| Tib. | Tib _{ndo} | Tib _{phal} | | DBhV _{Tib} | | ŚS _{Tib} | |
| | <u>theg pa chen po</u> mngon par sgrub pa | <u>ye shes chen po</u> 'i mngon par shes pa | | <u>ye shes chen po</u> mngon par sgrub pa | | <u>theg pa chen po</u> mngon par bsgrub pa | |

19) 이에 관해서는 ‘III. 『십지경론』의 제8대원과 제10대원에 나타난 Mahājñāna와 Mahāyāna’ 중에서 『십지경론』의 제10대원에 대한 주석과 해설을 참조할 것.

20) 제10대원에 관한 각 자료의 위치정보는 다음과 같다. E^R 16.19-29; E^K 21.14-22.05; Ch^{Dh}=『漸備一切智德經』(T285, 10) 462c17-29; Ch^K=『十住經』(T286, 10) 501c08-18; Ch^B=『大方廣佛華嚴經』(T278, 9) 546a6-17; DBhV_{Ch}=『十地經論』(T1522, 26) 140b20-140c03; Ch^{Sn}=『大方廣佛華嚴經』(T279, 10) 182a27-b08; Ch^{Sdh}=『佛說十地經』(T287, 10) 539b05-16; ŚS_{Ch}=『大乘集菩薩學論』(T1636, 32) 131a19-29; Tib_{ndo} Z69, 48a1-48b1; Tib_{phal} H94, 85b6- 86b2; DBhV_{Tib} D3993, 142a1-7; ŚS_{Tib}=D3940, 161b6-162a5.

우선 ③에서는 화엄부 <십지품>의 티벳역(Tib_{phai})을 제하고는 『십지경론』의 티벳역과 한역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가 ‘mahājñāna’에 상응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다. ④에서는 산스크리트, 한역, 티벳역 자료 모두에서 대승과 대지의 혼란이 나타난다. 특히 『십지경론』 한역(DBhV_{Ch})은 5세기 초의 꾸마라지바와 붓다바드라의 번역과 동일한데, 다르마락샤의 ‘佛道’를 ‘붓다의 깨달음’으로 이해한다면,²¹⁾ ‘위대한 [자의] 지혜’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 이러한 사실은 앞서 제8대원을 통해 세운 작업가설 “『십지경』에서 대지와 대승의 혼란은 본래 ‘위대한 [자의] 지혜’를 의미했던 용어를 ‘커다란 수레’로 의도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십지경론』 저자로 인해 초래했다”에 반(反)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은 폐기해야 할 것이지만, 『십지경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산문 리센션의 상당 자료(ŚS_{MS}, Tib_{mdo}, ŚS_{Tib})가 ‘커다란 수레’(mahāyāna)에 상응하는 어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십지경론』 저자의 주석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III. 『십지경론』 제8대원과 제10대원 주석에 나타난 Mahājñāna와 Mahāyāna

‘들어가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노 가즈오(加納和雄)는 아바야까라굽

21) Karashima 1998, 144-146: “佛道 the Buddha-path, the enlightenment of the Buddha.” 가라시마의 조사에 따르면 佛道는 대부분 산스크리트 문헌의 buddhabodhi, bodhi, buddhajñāna에 상응하는 ‘붓다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붓다의 수레[buddhayāna]에 해당하는 용어인 buddhayāna는 단 한번 등장한다.

22) 시기적으로 앞서며 운율의 제한으로 인해 바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요약계승(13번째 d-pāda)을 고려한다면, ④는 MS A 등의 ‘위대한 [자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mahājñānābhīnirhārāya)가 본래의 읽기였을 것이다. E^K 33.15-16; E^{RS} 339.06-07: “ekāśayā jinasutehi amoghatāyāḥ sarvatra vālapathī buddhiya hetu=m=arthe ||13|| {vālapathī} E^{RS}, bālapathī E^K ; buddhiya hetu=m=arthe] conj., buddhiya hetum arthe E^{RS}, buddhiyahetum arthe E^K. ‘hetu=m=arthe’로 보는 경우 hetu와 arthe 양자 모두 ‘~를 위하여’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부사로 이해하는 것이다.} 번역: [제 8대원에서] 승리자의 아들들과 동일한 의향을 지닌 자들은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제 9대원을 일으키고, 모든 터럭 안에서 [붓다의] 깨달음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 10대원을 일으킨다.]

타가 『무니마탈랑까라』에서 발췌한 『십지경론』(Daśabhūmakavyākhyā 혹은 Daśabhūmikavivṛti)²³⁾의 산스크리트 인용문을 출판하였다. 이 인용문은 『십지경』의 십대원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록 이 인용문이 주석의 티벳역, 한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우선 제8대원의 주석에 대한 산스크리트 인용문을 번역하고 이후에 티벳역을 주된 자료로 하는 번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스크리트 번역:] 여덟 번째 [대원(大願)]에서 “[모든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노력을 갖춘 자가 ②대승(大乘)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다른 승(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²⁴⁾

[티벳역 번역:] 그는 “모든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노력을 갖추기 위하여” 즉 다른 승(乘)을 원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의미인데], 10종의 보살행(*bodhisattvacaryā)으로서 특징지어진다. 무엇이 10종[의 보살행]인가? (1)적(敵)이 없는 선근들을 쌓는 것, (2)모든 보살들과 동일한 하나의 인식대상을 갖는 것, (3)항상 끊이지 않고 보살[들]과 교류하며 떨어지지 않는 것, (4)원하는 바대로 붓다[들]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 (5)스스로 발심하여 여래[들]의 신력(神力)을 지혜에 의해 이해하는 것, (6)손상되지 않고 따라가는 신통을 획득하는 것, (7)모든 세계로 유행(遊行)하는 것, (8)모든 회중의 무리에 현현(顯現)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 (9)모든 생처(生處)에 자신의 몸을 발생시키는 것, (10)①불가사의한 대승을 갖추는 것이다.

그 [10종류의 보살행] 중에서 첫 번째 [보살행]은 필수품²⁵⁾[資糧 *sambhāra]으로 특징지어진다. 두 번째는 동일하게 인식(*sārūpyopalabdhi)하여 내적으로 고요히 명상하는 것(*pratisamlayana)으로 [특징지어진다]. 세 번

23) 아비아까라굽타가 인용한 산스크리트 『십지경론』의 제목이 티벳역에서 복원한 *Daśabhūmikavyākhyā나 가 아니라, Daśabhūmakavyākhyā 혹은 Daśabhūmikavivṛti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加納(Kano) 2019, 117 참조.

24) 加納 2019, 120: “aṣṭama ekāśayaprayogo ②mahāyānāvatārānyayānāsprhanārthena |”

25) 수르야시디(Sūryasiddhi)는 이 ‘필수품’[資糧]을 “대승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품”(theḡ pa chen po la ‘jug pa’i tshogs)으로 주석한다.

째는 서로 논쟁하는 바를 확정하는 것(*saṃkathyaviniścaya)으로 [특징지어진다.] 네 번째는 원하는 바대로 붓다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의 발심이 뛰어나기에 여러의 법신(法身)을 기억(*anusmarāṇa)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여섯 번째는 신통을 완전하게 획득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나머지 [네 종류의 보살행]들은 신통의 작용(/활동)으로 특징지어 지는 데, [일곱 번째는] 다른 세계들로 가는 [신통의 작용]이고, [여덟 번째는] 자(自)와 타(他) 그리고 [자타(自他)라는] 그 둘을 상호간에 바르게 보여주는 [신통의 작용]이고,²⁶⁾ [아홉 번째는 모든 생처에] 동일하게/보편적으로 가는 [신통의 작용]이고, [열 번째 “①불가사의한 **대승**을 갖추는 것”은] 불가사의한 대승에 들어가게 하는(*acintyamahāyānāvātāraṇa) [신통의 작용]이다. [이와 같이 그는 모든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노력을 갖추기 위하여 여덟 번째] 대원(大願)을 일으킨다.²⁷⁾

인용을 통해 볼 때, 아바야까라굽타가 인용한 『십지경론』 산스크리트 구문은 티벳어의 첫 번째 구문의 절반(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산스크리트 발췌

26) 보리유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自餘異身示現)”으로 번역하고 있다.

27) DBhV_{Tib}=D3993, 142a1-7; Q5494, 181b4-182a3: “*de ni byang chub sems dpa' thams cad dang bsam pa dang | sbyor ba gcig pa nyid kyi phyir theg pa gzhān mi 'dod pa'i phyir te | byang chub sems dpa'i spyod pa mam pa bcus rab tu phyē ba'o || mam pa bcu gang zhe na | 'gran zla med pa'i dge ba'i rtsa ba sogs pa dang | byang chub sems dpa' thams cad dmigs pa gcig pa nyid dang | rtag tu rgyun mi 'chad par byang chub sems dpa' dang 'grog shing mi 'bral ba nyid dang | sangs rgyas 'byung ba ci dgar ston pa nyid dang | rang gi sems bskyed pas de bzhin gshegs pa rab tu 'byed pa ye shes kyi khong du chud pa nyid dang | ma nyams shing rjes su 'gro ba'i mngon par shes pa thob pa nyid dang | 'jig rten gyi khams thams cad du mam par rgyu ba nyid dang | 'khor gyi dkyil 'khor thams cad du snang ba thob pa nyid dang | skye ba thams cad du rang gi lus rjes su 'gro ba nyid dang | ① **theg pa chen po** bsam gyis mi khyab pa dang ldan pa nyid do || de la dang po ni tshogs kyi rab tu phyē ba'o || gnyis pa ni mthun par dmigs pas nang du yang dag 'jog pas so || gsum pa ni 'brel ba'i gdam mam par gtan^{*1)} la 'bebs pas so || bzhi pa ni sangs rgyas 'byung ba ci dgar ston pa'o || lnga pa ni rang gi sems bskyed pa'i khyad par gyis de bzhin gshegs pa'i chos kyi sku rjes su dran pas so || drug pa ni mngon par shes pa shin tu thob pas so || lhaq ma mams ni mngon par shes pa'i las kyi rab tu phyē ba ste | 'jig rten gyi khams gzhān dag tu^{*2)} 'gro ba dang | bdag dang | gzhān dag dang | de dag phan tshun yang dag par ston pa dang | skal ba 'dra bar 'gro ba dang | ① **theg pa chen po** bsam gyis mi khyab pa la 'dzud pa ste | smon lam chen po mngon par sgrub bo ||^{*1)} mam par gtan D, *mam par gnyan Q*; ^{*2)} *gzhān dag tu D, gzhān dag du Q*; DBhV_{Ch}=『十地經論』(T1522, 26: 140a17-140b02), “**第八大願不念餘乘故。如經。『一切菩薩同心同行』故。… ①十者成就不可思議大乘故 … ①四、入不可思議大乘故。**”*

문과 티벳역(+한역)이 다른 점은 전자가 제8대원을 불러일으키는 대표 목적을 “②대승(大乘)에 들어가기 위하여”로 <표 1>의 『십지경』 인용문과 동일한 형식을 취한 반면, 후자는 “모든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노력을 갖추기 위하여”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티벳역과 한역은 『십지경』에서 기술된 부수 목적들[(1)~(10)]을 역시 『십지경』에서 부수목적적이었던 “모든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노력을 갖추기 위하여”를 특징짓는 10종류의 보살행으로 주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 열 번째 “①불가사의한 대승을 【티벳역: 갖추는 것, 한역: 성취하는 것】”을 ①불가사의한 대승에 【티벳역: [중생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것, 한역: 들어가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주석과 더불어, 산스크리트 발췌문과 티벳역(+한역)이 모두 주목적을 다른 수레, 즉 소승(小乘)을 갈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은 앞서 <표 2>의 한역들을 통해 추리한 사실, 즉 『십지경론』에 와서 대지가 대승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이 대지를 의도적으로 대승으로 변형시켰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의도적인 변형은 제10대원의 주석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티벳역을²⁸⁾ 통해 제10대원의 주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티벳역만을 제시하는 것은 제10대원의 산스크리트 발췌문이 이후 논의와 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각주에서 산스크리트 원문과 해석을 자료로서 제시하고, 이후 티벳역은 지면의 제한 상 산스크리트 상응부분과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을 제시토록 한다. Kano 2019, 120: “daśame balānām vineyānām prādhānyena vinayasthānatvād **bālapatho** jambūdvīpaḥ | ekajambūdvīpakāle sarvajambūdvīpeṣv abhisambodhadarśanam ity arthaḥ | **prabhāvo** lokadhātvantareṣu sarvavaineyānām satyadeśanāyai | **jñānānugama** ekābhisambodhanena dharmanairātmyākāreṇa sarvadharmāṇām prakṛtīnirvāpādhimokṣaṇāt | **dharma**dhātuvīpulam ekavāgudāhāreṇa nānādhimuktīnām vineyānām yu(150v4)gapac cittasaṃjñāpanena” (열 번째 [대원]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은 염부제(閻浮提)인데, 왜냐하면 [염부제는] 어리석은 자 즉 훈련해야 하는 자들에게 있어 주로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십지경』에서 “하나의 범부의 길(凡夫道)과 다르지 않게 모든 범부의 길에서...”라는 것은] 하나의 염부제와 동시에 모든 염부제에서 완전히 완성된 깨달음[現前等覺]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능력**은 다른 세상들에서 개종(改宗)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성]제(四聖諦)를 가르치는 [능력]이다.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法無我]는 행상(行相)을 지닌 하나의 현증(現證)으로써 모든 현상들이 본질적으로 열반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기 때문에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다는 것은** 하나의 소리를 발함으로써 다양한 기질을 지닌 훈련해야 하는 자들로 하여금 동시에 마음을 조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티벳역 번역:] 그러한 ④‘대승의 완성’(*mahāyānābhīnirhāra)에 관해서 말하자면, ‘위대한 [자의] 깨달음’(*mahābodhi)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작용(*karman)으로 특징지어 지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그 [둘 중에서] ‘위대한 [자의] 깨달음’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anuttarā samyaksambodhi)이다. 그 [대보리]는 일곱 작용을 하는 것(*karmakriyā)이라고 알아야만 하는데, [그 일곱은] (1)완전히 완성된 깨달음(*abhisambodhi)을 보여주는 작용을 하는 것, (2)진실된 가르침(*satyadeśanā)를 보여주는 작용을 하는 것, (3)증득을 위한 교수(*adhigamāvavāda)의 작용을 하는 것, (4)다양한 법(*nānādharmā)을 가르치는 작용을 하는 것, (5)불종성(佛種姓 *buddhagotra)이 끊어지지 않게 작용하는 것, (6)법(*dharmanaya)을 다시 한 번 머무르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 (7)자유자재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 [일곱 작용들] 중에서 첫 번째 작용은 [『십지경』의] “하나의 범부의 길 [凡夫道]과 다르지 않게 모든 범부의 길에서 [재]생하고 태어나고…”라고 알아야만 하는데, [이는] 하나의 염부제와 동시에 모든 염부제에서라는 의미이다. 염부제는 훈련해야만 하는 범부들이 훈련하는 장소로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범부의 길’이라고 한다.

두 번째 작용에 관해 말하자면, 붓다의 위대한 경계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뒤따르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akṣana) [장소]들을 제외하고서 다른 세계들에서 모든 훈련받아야 할 자들의 의향에 따라 즉, 붓다들이 출현하기에 적합한(*kṣana) 여기저기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고(苦)를 알게 하고 집(集)을 적정하게 하고 멸(滅)을 증득케 하고 도(道)를 수습하게 한다고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작용은 현상에 실체가 없다[法無我]는 측면을 지닌 하나의 현증(現證)으로써 모든 현상들은 본질적으로 열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 여섯 번째 작용은 ③붓다가 지닌 지혜의 단계(*buddhajñānabhūmi)로부터 더도 또한 수트라(*sūtra)로 시작하는 모든 다르마를 정확하게 가르친다고 알아야 한다 ... 29)

29) DBhV_{Tib}=D3993, 143a4-b5; Q5494, 183a3-b7: “④theḡ pa chen po'i mngon par sgrub pa*1) de ni byang chub chen po ci 'dra ba dang | las gang gis de rab tu phy'e ba'o || de la byang chub chen po ni bla na med pa yang dag par rdzogs pa'i byang chub bo || de ni las bdun byed par rig par bya ste | mngon par rdzogs par

『십지경론』 저자 세친의 의도적인 ‘대지→대승’의 변형을 논하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③붓다가 지닌 지혜의 단계(sangs rgyas kyi ye shes kyi sa, 佛智地)이다. 이는 <표 4>에서 ③mahājñānabhūmi(위대한 [자의] 지혜)를 주석가가 바꾸어 쓴(paraphrase)것으로, 이 주석에 따르면 ‘mahā’는 ‘buddha’와 호환 가능한 용어이다. 따라서 ‘mahājñāna’는 ‘위대한 지혜’ 뿐 아니라 ‘위대한 자=붓다의 지혜’로도 해석가능하며, 후자는 <표 2>의 다르마락샤 번역 ‘大聖慧’(위대한 성인=붓다의 지혜)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³⁰⁾

이제 대지→대승의 의도적인 변형으로 눈을 돌리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제10대원의 대표 목적을 서술하는 『십지경』의 인용과 이에 대한 세친의 주석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상세히 말하자면, 『십지경론』의 『십지경』 인용에서

byang chub pa ston pa'i las byed pa dang | bden pa'i tshul ston pa'i las byed pa dang | 'thob pa'i gdams ngag gi las byed pa dang | chos sna tshogs ston pa'i las byed pa dang | sangs rgyas kyi rigs rgyun mi 'chad pa'i las byed pa dang | yang chos kyi lugs gnas par byed pa'i las byed pa dang | dbang gi las byed pa'o || de la las dang po ni byis pa'i lam gcig dang tha mi dad par byis pa'i lam thams cad du skye ba 'byung ba la sogs pa yin par rig par bya ste | 'dzam bu'i gling gcig dang dus mnyam du 'dzam bu'i gling thams cad du zhes bya ba'i tha tshig go || 'dzam bu'i gling ni gdul bya byis pa mams 'dul ba'i gnas kyi^{*2)} mchog tu gyur pas byis pa'i lam zhes bya'o || las gnyis pa ni^{*3)} mi dal ba mams ma gtogs par sangs rgyas kyi yul chen po'i mthu dang ye shes kyi rjes su 'gro bas | 'jig rten gyi khams gzhan dag tu gdul bya thams cad kyi bsam pa ji lta ba bzhin du sangs rgyas 'byung ba sangs rgyas 'byung bar dal ba de dang der skyes pa mams la sdug bsnal rtog par byed | kun 'byung ba zhi par byed | 'gog pa thob par byed^{*5)} | lam bsten^{*6)} par byed par rig par bya'o || las gsum pa ni gcig mngon du yang dag par rtogs pa | chos la bdag med pa'i mam par chos thams cad rang bzhin gyis mya ngan las 'das par mos pa yin par rig par bya'o || las bzhi pa ni tshig gcig brjod pas gdul bya mos pa tha dad pa mams kyi sems la cig car go bar byed pa'o || ... las drug pa ni ③ sangs rgyas kyi ye shes kyi^{*7)} sa las yang mdo la sogs pa'i chos thams cad dag pa ston pa yin par rig par bya'o || ... {^{*1)} sgrub pa] Q, bsgrub pa D; ^{*2)} gnas kyi] D, gnas kyi] Q; ^{*3)} las gnyis pa ni] Q, las gnyis pa de ni D; ^{*4)} yul chen po'i] D, yul chen po Q, ^{*5)} thob par byed] D, 'thob par byed Q; ^{*6)} bsten] em., bstan D Q; ^{*7)} ye shes kyi] D, ye shes kyi] Q; DBhV_{Ch} = 『十地經論』(T1522, 26: 140c08-141a01), “論曰：第十大願 ④起大乘行。云何大菩提？云何作業？大菩提者，如經「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第六業者，復③佛智地一切修多羅等，所說法軌則不失故。”

30) 각주 13 참조. 이 두 용례는 이영진(2019, 30)이 “‘mahājñāna’는 ‘위대한 지혜’라는 의미에서 ‘vipulajñāna’와 바꾸어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sarvajñajñāna·buddhajñāna·agrajñāna’와도 바꾸어 쓸 수 있는 용어이다. 이 경우 ‘mahā’는 ‘vipula’처럼 ‘커다란, 위대한’의 형용사의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일체지자, 여래, 붓다, 최상인 자’라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한 가설을 한층 더 강화해 주는 전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mahā를 동격한정복합어의 형용사 뿐 아니라, 6격 한정복합어의 명사로 풀이하고 있는 것은 mahāpadeśa의 용어 분석에서도 보인다. 몇몇 예만 들자면, Mūlasarvāstivādinaya와 그 계통에서는 *mahāpadeśa의 mahā를 형용사 뿐 아니라 *mahāśaṣṭr (cher ston pa)로 풀이하고 있으며(이영진 2018b, 197-200), 붓다고사는 mahāpadesa의 용어분석에서 mahā를 붓다 등(buddhadayo mahante mahante)이라고 주석하고 있다(이영진 2018b, 200, n.30).

제10대원을 불러일으키는 주목적은 <표 6>에서 보다시피 티벳역(DBhV_{Tib}) ‘*ye shes chen po mngon par sgrub pa*’와 한역(DBhV_{Ch}) ‘求太賀慧大神通等’으로 모두 ‘대지’와 관련된다. 그렇지만 주석의 첫머리에서 세친은 제 10대원의 주목적을 ‘대승을 완성/일으키는 것’ [DBhV_{Tib}: *theg pa chen po'i mngon par sgrub pa*, DBhV_{Ch}: 第十大願起大乘行] 으로 주석하고 있다.³¹⁾ 더욱이 곧 바로 이어지는, 이 용어를 설명하는 구문은 ‘위대한 [자의] 지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³²⁾ ‘위대한 [자의] 깨달음’ [DBhV_{Tib}: *byang chub chen po*, DBhV_{Ch}: 大菩提] 이 무상정등각’ [DBhV_{Tib}: *bla na med pa yang dag par rdzogs pa'i byang chub*, DBhV_{Ch}: 阿耨多羅三藐三菩提] 이라고 기술한다.

이것은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이 의도적으로 대지→대승으로 변형시켰다는 사실을 지시하며, <표 6>에서 산문 리센션 중 일부 자료(ŚS_{MS}, Tib_{mdo}, ŚS_{Tib})의 ‘커다란 수레’에 상응하는 어구가 『십지경론』 인용이 아니라 주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자면, 앞서 제시한 가설을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이 의도적으로 대지→대승으로 변형시킴에 따라서 『십지경론』 이후의 『십지경』 버전들에서 대지와 대승의 혼란이 초래되었다’로 발전시킬 수 있다.

31) 또한 이는 <표 6>에서 산문 리센션 중 일부 자료(ŚS_{MS}, Tib_{mdo}, ŚS_{Tib})의 ‘커다란 수레’에 상응하는 어구가 『십지경론』 주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필자는 이전의 논문에서 『십지경』 산문 리센션 제작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이영진 2019, 19의 n.24: “① 최초의 한역인 Dh(=Ch^{Dh})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십지경』은 본래 ‘산문 + 산문의 요약계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② Kj(=Ch^{Kj})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적어도 4세기 말~5세기 초까지는 시작계승이 더해져 그 형식은 ‘시작계승+산문+요약계승’의 형식으로 바뀐다. ③ 『십지경』의 산문 리센션이 제작된 것은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의 주석 이후로 추정된다. 즉 그가 『십지경』의 산문 부분만을 주석함에 따라, A 사본 등의 『십지경』의 산문 리센션이 유포되었다.” 필자가 mahāyāna와 mahājñāna의 혼동을 다룬 표2, 표3, 표6은 이 가설 중 ③에 거의 대부분 맞아들어 간다. 또한 각각 16과 17은 『십지경론』의 주석에 따라 산문 리센션 『십지경』 본문의 이해가 바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2) mahājñāna를 ‘위대한 지혜’ 이외에도 ‘위대한 자(=부다)들의 지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mahābodhi 역시 ‘위대한 자(=부다)[들]의 깨달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mahājñāna와 mahābodhi는 동의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승장엄경론』에서 보살종성(菩薩種性)의 기반(nimitta)을 언급하면서, mahābodhi와 mahājñāna를 개별적인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존재한다. MSA^L 12.23-25: “*tadupamaṃ bodhisatvagotraṃ veditavyaṃ mahābodhinimittatvāt mahājñānanimittatvād āryasamādhinimittatvāt cittasya hi samsthitiḥ samādhiḥ mahāsatvapariṣkānimittatvāc ca bahusatvapariṣkānāt*”

또한, 세친이 ‘mahāyāna’를 ‘mahājñān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mahābodhi (大菩提)=anuttarā samyaksambodhi(無上正等覺)’로 풀이하고 있다³³⁾는 사실은 다른 문헌들에서 보이는 예처럼³⁴⁾ ‘mahājñāna’를 ‘mahāyāna’로 해석하거나 혹은 ‘mahāyāna’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IV. 나오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십지경』 제1지의 제8대원과 제10대원을 서술한 다양한 자료와 『십지경론』의 주석을 통해서, 『십지경』에서 대지와 대승의 혼란은 본래 ‘위대한 [자의] 지혜’(mahājñāna)를 ‘커다란 수레’(mahāyāna)로 의도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십지경론』의 저자로 인해 초래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십지경』의 제8대원과 제10대원에 한정하는 한, 이 가설은 유효한 것으로 판명하였다. 특히 제10대원의 주석에서 세친이 ‘위대한 [자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라는 인용을 바로 뒤이어 ‘커다란 수레를 완성하기 위하여’로 바꾸어 쓴다는 점은 세친이 의도적으로 대지를 대승으로 변형시켰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세친은 이러한 대승을 ‘위대한 [자의] 지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대한 [자의] 깨달음(大菩提)=위없는 바른 깨달음(無上正等覺)’과 동일시하여, 제

33) 이는 <표 6>에서 『大乘集菩薩學論』(ŚS_{Ch})의 ‘成三菩提’와 일치하며, 중앙아시아사본(CAMS)의 mahāyāna-bhisambodhy의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준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실라다르마의 한역(Ch^{Sdh}) ‘大乘菩薩’을 ‘大乘菩提’로 교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4) 가라시마는 이러한 예에 관해서 이미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Karashima(2019, 186의 n.60): “Su[vikrāntavikrāmi-]P[ariprechā] P[rajñāpāramitā-Sūtra] 19.18f. = SuPP[V[aidya]] 10.26f. *katamac ca mahāyānaṃ? sarvaṃ jñānaṃ mahāyānaṃ* (“What is *mahāyāna*? Entire wisdom is *mahāyāna*.”); Yogaratnamālā 105.7f. *mahājñānāni mahāyānapraṇītā dharmāḥ* (“Great wisdom is produced from *mahāyāna*.”) 특히 Yogaratnamālā의 구절은 <표 2>에서 실라다르마 역(Ch^{Sdh})의 ‘大乘理趣’(*mahāyānanaya)와 『大乘集菩薩學論』(ŚS_{Ch})의 ‘大乘妙法’(*mahāyāna[sad]dharma)과 일맥상통한다.

10대원의 대표 목적을 ‘위대한 [자의] 깨달음을/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하여’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제8대원의 주석에서 주목할 점은 비록 아바야까라굽타의 『십지경론』 발췌문에서는 ‘커다란 수레에 들어가기 위하여’라는 대표 목적이 나타나지만, 『십지경론』의 한역과 티벳역에서는 생략되어 제8대원을 일으키는 주목적이 ‘모든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노력을 갖추기 위하여’ 즉 소승을 갈망하지 않기 위하여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세친의 주석은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인용하는 『십지경』의 제8대원과 제10대원의 서술과 완전히 일치한다.

〈표 7〉 『보살지』(보리분품)과 〈주품〉의 서술

| | |
|--------|---|
| <보리분품> | 모든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동일한 노력을 갖추기 위하여, 【②[중생들로 하여금] ②대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여덟 번째] 대원을 [불러일으킨다.] … ④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전히 깨닫기 위하여 [열 번째] 대원을 [불러일으킨다.] ³⁵⁾ |
| <주품> |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동일한 노력을 갖추기 위하여 ³⁶⁾ 여덟 번째 [대원을 불러일으킨다.] … ④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전히 깨닫기 위하여 붓다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열 번째 대원을 불러일으킨다. ³⁷⁾ |

「보살지」는 『십지경론』의 주석과 동일하게 제8대원을 일으키는 대표 목적이 ‘대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가 남아있거나(<보리분품> DBh^D) ‘보살들과 동일한 의향과 동일한 노력을 갖추기 위하여’로 대치되며(<보리분품>DBh^W, <주품>), 제10대원을 일으키는 주목적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無上正等覺)을 깨닫는 것이다. 이를 II장에서 제시한 가설과 결합하면, 「보살지」에

35) BBh^D 187.12-14; BBh^W 275.23-276.01; “sarvabodhisattvaikāśayaprayogātāyai 【②mahāyānāvataranātāyai】 mahāprañidhānam … ④anuttarasamyakṣambodhyabhisambodhāya mahāprañidhānam. {*mahāyānāvataranātāyai} BBh^D, om. BBh^W” * 卍 는 두 편집본 중 하나에만 나타나는 어구를 지시

36) 414-426년 번역된 담무침(曇無讖) 역의 『菩薩地持經』(T1581, 30: 934b21-22), “一心方便以大乘度”라 하여 “②대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에 상응하는 구문이 있지만, 현장의 646-648년 번역인 『瑜伽師地論』(T1579, 30: 555b17-18), “與諸菩薩常同一味意樂加行”에는 상응하는 구문이 없다.

37) bodhisattvaiś ca sahaikāśayaprayogātāyai aṣṭamaṃ … ④anuttarasamyakṣambodhyabhisambuddhanātāyai buddhakṛtyakaraṇātāyai daśamaṃ mahāprañidhānam abhinirharati. {bodhisattvaiś} BBh^W, sarvajātīṣu buddhabodhisattvīvirahitātāyai BBh^D, ; prayogātāyai BBh^W, prayogītāyai BBh^D; abhisambuddhanātāyai BBh^W, abhisambuddhyanātāyai BBh^D}

서는 본래 『십지경』의 ‘위대한 [자의] 깨달음’(mahājñāna)이 제8대원에서 ‘커다란 수레’(mahāyāna)로 바뀌어 남아있거나 탈락되고, 제10대원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anuttarā samyaksambodhi)으로 변화하였다³⁸⁾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살지』와 『십지경론』 주석의 동일성을 생각해볼 때,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이 무착(無着)의 동생으로 『십지경』 등의 대승경전들과 『중변분별론』 등의 논서에 대한 주석을 남긴 고(古) 세친으로 『구사론』 『유식이십론』 등의 저자인 신(新) 세친과 구별되는지 아닌지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³⁹⁾ 「보살지」 등의 초기유가행파의 견해에 입각하여⁴⁰⁾ 『십지경』을 주석하고 그 내용을 대지→대승으로 변용한 것은 아닐까?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제4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리(自利)→이타(利他)로의 중심축 이동,⁴¹⁾ 이 경우 ‘보살이 붓다의 깨달음[mahājñāna]에 들어감을 목표로 한다’는 자리(自利)적 측면이 강조된 입장에서부터 ‘중생을 커다란 수레[mahāyāna]에 들어가게 하여(=태워)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는 이타(利他)로 중심축을 옮기기 위하여, 세친 혹은 그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이 대지→대승으로 변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⁴²⁾ 이러한 거친 추정들을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38) 즉 제8대원: 대지 → 대승/×; 제10대원 대지 → 무상정등각. 이는 Walser(2007, 225-226, n.17)가 좀 더 넓은 범위의 대승경전에 가라시마의 가설은 적용되기 힘들다고 생각한 이유 중 세 번째 “초기 대승운동에서 mahājñāna라는 용어가 중요하다면 초기대승문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그 중요성은 반야바라밀과 같은 용어들에 의해 가려져 있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접하고 있는 초기대승문헌은 이미 mahājñāna가 mahāyāna 혹은 [abhi]sambodhi로 변형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39) 후라우발너와 슈미트하우젠의 세친2인설의 개요에 관해서는 이종철 2003, 281-283 참조. 또한 신고(新古)의 구별 없이 동일한 세친이 『십지경론』을 저술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大竹(Otake) 2005, 15-20과 39-40 참조.

40) 혹은 양자 모두 『십지경』의 요약개송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약 개송에 관해서는 각주 22번 참조할 것.

41) 이에 관해선 이영진 2018a, 특히 53-55 참조.

42) 이 가능성은 심사를 위해 초고 논문을 제출하고 난 후 『십지경』의 mahāyāna의 비유를 다루는 논문을 구상하면서 든 생각으로, 최종논문을 제출하는 2021년 12월 15일 현재 점점 무게추가 이 추정으로 기울고 있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 BBh^D *Bodhisattvabhūmiḥ*, ed. DUTT, Nalinaksha, Patna: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78.
- BBh^W *Bodhisattvabhūmi*, ed. WOGIHARA, Unrai, Tokyo: 1930-1936.
- CA_{MS} Central Asian Manuscript fragment of the *Daśabhūmikasūtra* = Sanskrithandschriften aus den Turfanfunden (SHT) 414a,
- Ch^B 『大方廣佛華嚴經』 T278.
- Ch^{Dh} 『漸備一切智德經』 T285.
- Ch^K 『十住經』 T286.
- Ch^{Śdh} 『佛說十地經』 T287.
- Ch^{Śn} 『大方廣佛華嚴經』 T279.
- DBhV_{Ch} 『十地經論』 T1522.
- DBhV_{Tib} *'phags pa sa bcu pa'i rnam par bshad pa*, D3993, *mdo 'grel, ngi* 103b1-266a7, Q5494, *mdo tshogs 'grel pa, ngi* 130b3-335a4.
- E^K *Daśabhūmīśvaro nāma mahāyānasūtram*, ed. KONDŌ, Ryūkō, Tokyo: The Daijyō Bukkyō Kenyō-Kai, 1936.
- E^R *Daśabhūmikasūtra et Bodhisattvabhūmi*, ed. RAHDER, Johannes, Paris, Louvain: Paul Geuthner and J. B. ISTAS, Imprimeur, 1926.
- E^{RS} RAHDER, Johannes and SUSA, Shinryu. 1931. "The Gāthas of the *Daśabhūmika-sūtra*" *The Eastern Buddhist*, vol. 5, no. 1, 335-359.
- MS A Sanskrit Manuscript of the *Daśabhūmikasūtra*, NGMPP Reel No. A 39/13 (37 folios) + A 38/5 (12 folios)
- ŚS_{Ch} 『大乘集菩薩學論』 T1636.
- ŚS_{MS} Sanskrit Manuscript of the *Śikṣāsamuccaya*, MS Add.1478.
- ŚS_{Tib} *bslab pa kun las btus pa, dbu ma, khi* 3a2-194b5.
- Tib_{mdo} Tibetan translation of the *Daśabhūmikasūtra* in the *mdo sde* section, Z50, *mdo*

sde, ga 32a4-156b7.

Tib_{phal} Tibetan translation of the *Daśabhūmikāsūtra* in the *phal chen* section, H94, *phal chen, ga* 67a6-234b2.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KANO, Kazuo (加納和雄). 2019. 「世親作 『十地經論』 の梵文佚文」 [“Sanskrit Excerpts from Vasubandhu's *Daśabhūmikāsūtra* commentary”], 『印度學佛教學研究』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 62, no. 2, 116-120.

KARASHIMA, Seishi (辛嶋静志). 1998. *A Glossary of Dharmarakṣa's Translation of the Lotus Sutra* 正法華經詞典, 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at Soka University.

_____. 2015. “Vehicle (*yāna*) and Wisdom (*jñāna*) in the Lotus Sutra — the Origin of the Notion of *yāna* in Mahāyāna Buddhism,” *ARIRIAB*, vol. XVIII, 163-196.

LEE, Jong-Cheol (이종철). 2003. 「와수반두(Vasubandhu, 世親)의 저작 및 사상적 귀속 문제(1)」 [Against the theory of two Vasubandhus (1)], 『불교학연구』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 6, 281-310.

LEE, Youngjin (이영진). 2018a. 「『십지경』(Daśabhūmikāsūtra)의 제사대원(第四大願) 재고(再考): 자리에서 이타로, 그리고 지(地)의 청정에서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Revisiting the Fourth *Mahāprañidhāna* (*dāyuaṇ* of the *Daśabhūmikāsūtra*), 『불교학보』 (*Bulgyohakbo*), vol. 83, 39-60.

_____. 2018b. 「흑설(黑說)과 대설(大說)에 관하여— 근본/설일체유부의 전적(典籍)과 『유가사지론』 「본지분」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erms of *kālāpadeśa* and *mahāpadeśa*: focusing on the texts affiliated with the (Mūla)sarvāstivāda], 『보조사상』 (*Journal of Bojo Jimul's Thought*), vol. 52, 185-223.

_____. 2019. 「Mahāyāna(大乘)인가? Mahājñāna(大智)인가? (1)-『십지경』 제2지에 보이는 두 용어의 혼동(混同)에 관하여-」 [Either *Mahāyāna* or *Mahājñāna*? (1) A Study on the confusion of the two terms in the second stage of the *Daśabhūmikāsūtra*], 『불교연구』 (*Bulgyo-Yongu*), vol. 50, 9-36.

MATSUDA, Kazunobu. 1996. *Two Sanskrit manuscripts of the Daśabhūmikāsūtra*

preserved at the National Archives, Kathmandu, Tokyo: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for Unesco.

OTAKE, Susumu (大竹 晋). 2005. 『十地經論I』 [**Japaness translation of the *Daśabhūmakavyākhyā*], Tokyo: 大蔵出版 (Daizoshuppan)

PARK, Boram (박보람). 2016. 「『십지경』 '非初非中後' 계송과 그에 대한 『십지경론』 주석의 이해」 [The meaning of the verse, “not the first nor the middle nor the last”(非初非中後) in *Daśabhūmikasūtra*], 『불교학보』 (*Bulgyohakbo*), vol. 74, 147-168.

YUYAMA, Akira. 1996. “A Critical Survey of Philological Studies of the *Daśabhūmikasūtra*,” in *Suhllekhāḥ Festgabe für Helmut Eimer*, Michael Hahn, Jens-Uwe Hartmann, and Roland Steiner eds., Swisttal-Odendorf: Indica et Tibetica Verlag, 263-280.

The Modification from *Mahājñāna* to *Mahāyāna* in the *Daśabhūmikasūtra*: How did Vasubandhu, the author of the *Daśabhūmakavyākhyā*, play an significant role?

LEE, Youngjin

Researcher

Institute of East-West Though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fusion between the two terms, *i.e.*, *mahājñāna* (the great wisdom) and *mahāyāna* (the great vehicle), shown in the 8th and 10th great vows of *bodhisattvas* of the *Daśabhūmikasūtra* (*DBh*).

Comparing 16 versions of the two vows of the *DBh* — primarily focusing on the seven versions of the Chinese translation, the second chapter constructs a working hypothesis that the confusion was caused by Vasubandhu, the author of the *Daśabhūmakavyākhyā* (or *Daśabhūmikavivṛti*, *DBhV*), who had intended to substitute *mahājñāna* with *mahāyāna*.

For verifying the hypothesis,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comment on the two vows by Vasubandhu and realizes that he deliberately paraphrased the *mahājñāna* of the *DBh* with the *mahāyāna*, which relates to the great enlightenment (**mahābodhi*) interpreted as the unsurpassed, complete, and perfect enlightenment (**anuttarā samyaksambodhi*).

The fourth chapter makes an inference that Vasubandhu, the author of the *DBhV*, made comments on the two vows based on the early *yogācāras*' opinion. This speculation come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Bodhisattvabhūmi* and the Vasubandhu's commentary agree to accept the same primary purposes of the 8th and 10th great vows, *i.e.* in order to possess the same intentions and efforts with all

bodhisattvas and to achieve the unsurpassed, complete, and perfect enlightenment, respectively.

This paper also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mahājñāna* as the wisdom of the great (=Buddha). Vasubandhu rephrases the *mahājñāna* as the wisdom of Buddha (**buddhajñāna*) in his commentary as well as Dharmarakṣa translated the equivalent for *mahājñāna* (supposedly, **mahājāna* in Prakrit) into the wisdom of the great sage (大聖慧).

Keywords

Daśabhūmikasūtra, *Daśabhūmakavyākhyā* (or *Daśabhūmikavivṛti*), 8th Great Vow, 10th Great Vow, Great Wisdom (or Wisdom of the Great), Great Vehicle

2021년 11월 03일 투고
2021년 12월 10일 심사완료
2021년 12월 13일 게재확정